



[산업] 최정우 “저탄소 친환경 공정개발 주력” 08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658.99 (-26.91)	코스닥	891.14 (-2.22)
금리 (미국 3년)	3.091 (+0.064)	환율 (원/달러)	1253.5 (+16.30) (2일)

‘원팀’ 된 중앙-지방정부... ‘지방균형발전’ 탄력 받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2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창용 한은총재 ‘BOK 국제컨퍼런스’ “중앙은행 역할 전환점 장기 저성장 배제 못 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총수요의 회복은 경제 여러 부문에서의 공급 제약과 맞물리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됐다”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 국가에서 근원 인플레이션과 장기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해 목표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변화하는 중앙은행의 역할: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20여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저성장·저물가지조속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정책당국은 급기야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보건위기까지 겪게 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처럼 물가안정이란 기본 역할에만 집중하면 되는가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진정됐을 때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같은 저성장·저물가지조속해 올 것인가 ▲최근 예상치 못한 높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이를 보완하거나 새로 개발해야 하는지 등을 꼽았다.

선진국의 통화정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흥국의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통화정책의 자율성 확보마저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한 국가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자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면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외 영향력이 커지면서 통화정책을 자율적으로 펴기가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2면에 계속)

/백지연 기자 wldus0248@

‘제8회 지선’ 국민의힘 압승에 尹정부 임기초 운영동력 확보 “균형발전 통해 민생안정 총력” 여소야대 형국 ‘협치’는 숙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관련기사 2~4, 6면>

여소야대 국화와 지난 3·9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0.73%p 차이로 ‘초박빙’ 승리를 거뒀던 윤 대통령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가 그만큼 절실했다. 사실상 대선 연장전 성격을 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정부 견제론’이 아닌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인시켰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 권력 구도까지 교체될 이뤄낸 윤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민심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국정 운영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반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주도 혁신성장과 지방균형발전으로,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등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강인선 대변인은 2일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고졸 인재들과 함께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에서 신한은행 부스를 방문해 학생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뉴스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지방 권력에서 여권이 우세한 구도가 형성돼 윤 대통령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지방균형발전’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들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

문에 윤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으로 만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조례 등 지방자치 법령 범위 안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은 2년 뒤에 치러지는 22대 총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야당의 ‘협

치’는 숙제다. 윤 대통령이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개정 등 169석이라는 압도적인 국회 의석과 함께 의회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방선거 뒤로 미뤄졌던 민주당 지도부와 의회도 조만간 추진하며 민주당과의 협치를 위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방선거 참패 이후 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의 총사퇴와 당 재정비 등 공백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커 추이를 지켜보고 회동을 진행하겠다는 분위기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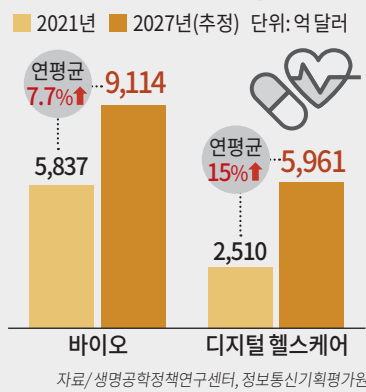
고령화 시대 블루오션 ‘디지털 헬스케어’ 판 커진다

차세대 국가유망 산업

AI·빅데이터로 개인 맞춤 치료 5년후 글로벌 시장 규모 747조 새 정부, 미래 국정과제로 꼽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과정에서 바이오 산업이 유망 산업으로 떠올랐고, 이와 더불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도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바이오 산업은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면역과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가장 빠르게 혁신을 거듭 분야로 평가받는다. 이에 더해 개인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면서 이를 제공하는 데이터

글로벌 유망산업 시장 규모



기반형 스마트 헬스케어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수년 전만 해도 전문 의료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인에

게는 관심 없는 분야였다.

2일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코로나19 발생의 영향으로 글로벌 바이오 산업 시장 규모를 2021년 5837억 달러(약 730조원)에서 2027년 9114억 달러(약 1130조원)로 연평균 7.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5면>

또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글로벌 디지털 헬스 전망을 보면, 세계 디지털 헬스 시장 규모는 2021년 2510억 달러(약 314조원)에서 연평균 약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치대로라면 2027년에는 약 5961억 달러(약 747조원)까지 세계 규모가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헬스

케어 시장은 연평균 6.7%가량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보건의료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 분야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제약·바이오 산업과도 결합해 전자약, 디지털 치료제 개발로도 이어진다. 특히 디지털 치료제의 경우 전통 의약품보다 연구개발(R&D)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인 뿐 아니라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 치료가 가능하고, 부작용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5면에 계속)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뉴스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김은혜 8000표차 낙선에 ‘역적’된 ‘강용석 5만표’... 가세연 내분 /사진 뉴스
▲ 시·도지사 당선인 3명이 행안부 출신... 기초단체장 14명

▲ 한덕수 총리 “국가유공자·유가족 예우와 지원 최고 수준 향상”
▲ 서울·충·중·국방부, 해·공군 직통 전화 추가 개통 합의



▲ 이재명, 비대위 총사퇴·책임론 봇물에도 이틀째 침묵 /사진 뉴스
▲ 민주당, 또 리더십 공백 상태 속에 전대 앞 계파갈등 현실화